

보도시점 2026. 6. 5.(금) 06:00
6. 5.(금) 석간

배포 2026. 6. 4.(목) 14:00

여름철 동물보호센터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 폭염·집중호우 대비 전국 동물보호센터 226개소 대상 현장점검 추진
- 냉방·환기·급수 상태 등 보호동물 건강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보호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보호동물의 온열질환과 시설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226개 동물보호센터(직영 89, 위탁 137)의 여름철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사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센터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내 보호공간 적정온도(28℃ 미만) 유지 여부 ▲냉방·환기설비 운영 상태 ▲차광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음수 공급 ▲보호동물 건강상태 확인 ▲휴일·야간 대응체계 ▲침수·붕괴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개선조치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후속 관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여름철 폭염은 보호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름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경철 (044-201-2280)
	개식용종식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임하덕 (044-201-2987)

혹서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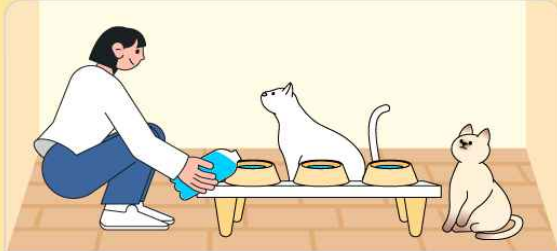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 보호공간은 가급적 28°C 이하로 유지



✓ 실외 보호 중인 동물이 있는 경우 **실내로 이동**
✓ 불가피한 경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광막 등 그늘 설치



✓ 물 급수 장소와 물그릇 수를 확대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공급



✓ 보호동물 상태를 **상시 관찰**하고 얼음팩 등 제공하여 온도 조절

* 과호흡, 구토, 몸이 축 늘어진 증상 발견 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수의사에게 연락



✓ 신규 입소동물은 차량에서 즉시 센터로 이동
✓ 적응시간을 충분히 제공 후, 위생·전염병관리 등 적정 조치



✓ 산책 시 보호센터 내 실내 공간을 활용
✓ 야외 산책은 아스팔트 길을 피해 가급적 그늘로 다니기 * 이른 오전 또는 늦은 오후 실시